

불임 클리닉

황경진 박사 그레이스병원

어떤 경우를 불임이라고 할까?

불임은 부부가 아무런 피임도 하지 않고 1주일에 평균 2~3회 이상의 정상 부부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임신이 되지 않을 때를 말한다. 부부가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부부관계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면 1년 안에 아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임이라고 할 수 없다.

결혼한지 1년이 되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부부의 약 90%는 임신이 된다. 나머지 10~15% 정도는 임신이 잘 안 된다. 10쌍의 부부 중 1~2쌍의 부부가 불임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불임 검사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 불임이라는 진단을 내린다고 꼭 1년이 지나서 불임검사를 받거나 진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년이란 기간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잡은 기준이고 부부마다 각기 사정이 다르고, 각 개인마다 특이한 병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이가 30세가 넘어서 결혼하게 된 커플은 결혼생활이 채 1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자마자 필요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신능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아기를 갖기 위한 노력은 부부의 나이가 이미 30세를 넘어섰다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20대와 30대의 임신능력은 많은 차이가 있다.

또 과거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결혼 전이라도 나팔관과 자궁에 혹시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X-ray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 결과 만약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발견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들도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한 시대라 30세를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꽤 많다.



이러한 현상은 불임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늦게 결혼하는 부부일수록 결혼을 앞두고나 결혼 직후 최소한 아이를 갖는 데 기본적으로 무슨 이상이 없는지 간단한 검사를 미리 하면 큰 도움이 된다.

불임의 원인은 무엇일까?

불임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 남성에 의한 원인이 40%, 여성에 의한 경우가 40%로 확률이 거의 같다. 나머지 약 20% 정도가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동원해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원인불명의 불임인 것으로 본다.

남성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는지는 정액검사를 통해 정자의 수효, 운동성 혹은 기형여부를 봄으로써 간단하게 밝힐 수 있다. 반면 여성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원인이 다양하다. 배란장애로 인한 경우가 약 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나팔관과 자궁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로 약 20%, 자궁경관의 이상이 5~10%, 기타 면역학적인 요인이나 감염 등의 원인이 약 5%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 불임이 문제가 되나?

1. 심한 스트레스나 과격한 운동 혹은 다이어트로 영양상태가 불량할 때
2. 월경이 매우 불규칙하고 불순한 경우
3. 유방에서 젖이 나오면서 무월경 상태일 때
4. 초음파 검사상 다낭성 난소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5. 만성적·전신적인 내과질환이 있는 경우
6. 조기 난소부전증으로 난소에서 전혀 배란이 안 되는 경우
7. 나팔관 촬영을 했을 때 양쪽 나팔관이 막힌 경우
8. 골반 내의 염증으로 나팔관 주위에 유착이 생긴 경우
9. 자궁 X-ray촬영 결과 자궁내막이 서로 유착되어 막힌 경우
10. 자궁근종이나 내막 폴립
11. 선천적으로 자궁 모양에 기형이 있을 때
12. 난소의 황체기 결핍으로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여 자궁내막이 수정란이 자라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13. 생리통·성교통이 심한 자궁내막증이 있거나 난소에 자궁내막종 같은 혹이 있을 때
14. 배란기인 데도 자궁 경관에서 전혀 분비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따라서 상기와 같은 상태에 해당사항이 있는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조기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72**